

서강방송국 방송제 단편영화 시나리오 샘플

- Black, Out -

#1

어두운 방, 침대에 누워있는 우준은 팔을 들어 가만히 손을 바라본다.

우준(N) 가끔은 내가 아주 까매진 것 같아. 까맣고 까매서 투명해진 기분. 그래서 가끔 확인해봐. 진짜 내가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닌지.

#3

옆드려 있는 우신. 우준은 우신의 허리를 주무르고 있다.

우준 일하는 거 힘들지.

우신 힘들지.

우준 (속상한 듯 꺾꺾 손에 힘을 주어 누른다)

우신 (비명을 지른다) 아아! 야, 살살 살살.

우준 나도 알바 하나 할까?

우신 됐어. 고3이 무슨 알바야.

우준 형도 고딩 때부터 했잖아.

우신 형은, (한숨을 쉬고선 몸을 일으켜 앉는다) 우준아, 지금은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돼, 다른 생각 하지 말고. (안심하라는 듯 웃으며) 너 학비까지는 형이 대줄 수 있어.

우준 (못마땅한 듯 표정이 좋지 않다)

우신 너 공부 잘 하잖아. 돈은 나중에 벌면 돼. 지금은 공부할 때고. 알겠지?

우준 (마지못해 미소를 짓는다) 옆드려봐. 파스 붙여줄게.

우신 (얇는 소리를 내며 옆드린다)

#13

우신은 모친의 사진 앞에서 인사를 드린다.

우신 요즘 이력서도 넣고 면접도 보러 다녀요. 아직 불러주는 데는 없는데, 그래도 장하다 생각해주세요. 우준이 오늘 독립했어요. 꼬맹인 줄 알

았는데 벌써 혼자 나가 살 줄도 알고 이상하네요. (눈물이 고이기 시작한다) 제가 너무 힘들게 했나 봐요. 형이 돼서... 우준이 잘 챙기라고 하셨는데 죄송해요.

우신, 눈물이 고인 채 사진을 들여다본다.

우신 엄마, (눈물이 흘러내린다) 저 어떡하죠?

#16

명서 우신이 형은 뭐해요?
우준 우리한테 손 흔들고 있어. (우신이 있는 곳을 고갯짓으로 가리킨다) 저기.
명서 (우신이 걷고 있는 곳을 쳐다보며 양손을 번쩍 들어 손을 흔든다)
우준 (돌을 보며 웃는다)
명서 (모래를 만지작거리며 장난을 친다)
우준 (명서의 팔에 난 멍자국에 시선이 머무른다) 언제부터 그런 거야?
명서 (자신의 팔을 힐끗 본다) 어릴 때부터요.
우준 부모님?
명서 아빠요.
우준 아빠 안 미워?
명서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준 (담담하게) 근데 왜 나왔어.
명서 (가볍게 말한다)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뛰쳐나왔죠. 아빠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죽기로 했어요. 아빠를 죽일 순 없으니까.
우준 (바다를 바라본다)
명서 저 내일 갈 거예요. 산에요.

#19

우준은 집으로 향한다. 버스에서 내리는 우준, 길을 걷는 우준, 우준의 옆엔 계속 우신이 있다.

어두운 집 안,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는 두 사람.

우준 (날카롭게 묻는다. 목소리가 떨린다) 왜 계속 나타나는 거야?

우신 (담담하게) 내가 나타난 게 아니야. 네가 날 부른 거지.
우준 (미칠 듯이 화가 난다) 왜 죽어서까지 나를 괴롭혀? 대체 왜!
우신 (우준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본다)
우준 내 눈앞에서 사라져. (지긋지긋하다는 표정으로) 다신 나타나지 마.
우신 (대답이 없다)
우준 (머리를 감싸 안는다) 제발 가라고!

#22

산 정상에 오른 명서. 해가 떠오르고 있다. 너무 아름답다. 명서는 눈물이 고인 채 눈이 시리도록 햇살을 바라본다.

벽에 기대어 앉아있는 우준.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빈방을 하염없이 바라본다. 우준은 고개를 들어 책상에 놓인 약병을 쳐다본다.

터벅터벅 산길을 내려오는 명서의 발.

우준의 핸드폰이 울린다. 전화 소리가 끊길 때쯤 우준이 일어나 전화를 받는다.

명서 형.

공중전화 부스 안, 전화를 걸고 있는 명서.

명서 (울음을 터트린다) 나 좀 데리러 와줄 수 있어요?

명서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던 우준은 두 눈을 꼭 감는다.